

해인사의 3·1운동*

최화정**

• 목 차 •

I. 서언

II. 사료의 검토

1. 개인 회고
2. 국내 신문보도
3. 일제 공문서

III. 해인사의 독립운동

1. 불교계
2. 해인학림
3. 해인사의 3·1운동
4. 3·1운동 이후

IV. 3·1운동의 영향

1. 만당의 결성
2. 해인사 사건

V. 결어

* 이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9년도 2월 27일 호국불교연구 학술세미나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사무국장.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9-47.

한글요약

불교는 사회적인 종교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승경전들은 사부대중이 모여 법회를 여는 것으로 경전의 서분을 이룬다. 이 서분은 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로 시작하여 그 경을 설한 때와 장소, 설법의 대상 등 일체의 주변 여건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처의 대승적인 가르침이 근대 한국사회와 만나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3·1운동이었다. 즉 남녀노소와 승속을 막론하고 전 민족적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한 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반세기전에 효당 최범술이 기록한 「三·一運動과 海印寺」는 해인사의 지방학림의 근대적 모습 속에서 한 세기 전의 큰 민족적 사건인 3·1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효당 최범술의 해인사 3·1운동에 대한 회고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이다. 효당의 회고는 여러 독립운동사의 기술에 기초가 되었고, 이후 해인사의 3·1운동은 주로 하나의 소단원으로 다루게 되었다.

둘째, 해인사 3·1운동이후 참가자들은 국내와 국외에서 의열단과 만당 등이 활동을 이어가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대표적으로 밀양사건의 주모자인 신철휴는 국내에서 의열단의 활동을 하였으며, 효당 최범술은 일본에서 박열 등과 함께 천황암살을 모의하였는데, 이후 해인사의 말사였던 다솔사와 해인사를 오가면서 만당의 근거지를 비밀리에 제공하여 김법린, 김범부 등의 여러 애국지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다.

셋째, 해인사의 3·1운동은 해인사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중등교육과정인 해인사 지방학림과 초등교육과정인 해인보통학교에 근거하였는데, 이후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교육에 참여하는 배경이 되었다. 예로 당시 해인보통학교의 교사였던 정광호와 해인사 지방학림의 학생이었던 효당 최범술은 제헌국회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이 반 세기전의 기록인 효당 최범술의 회고인 「3·1운동과 해인사」등을 통해 해인사의 지방학림의 근대적 모습 속에서 한 세기 전의 큰 민족적 사건인 3·1운동을 살펴보면, 뜻밖에도 승속을 아우르는 그 모습은 경전의 법회 속에서 사부대중이 모이는 자리와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한 해인사 지방학림과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불교인들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과거의 소중한 궤적은 해인사의 역사를 전하는 『해인사지』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주제어

해인사, 다술사, 지방학림, 3·1운동, 의열단, 만당, 만해 한용운, 효당 최범술, 제헌국회, 해인대학.

I. 서언

1. 연구주제

불교는 사회적인 종교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승경전들은 사부대중이 모여 법회를 여는 것으로 경전의 序分을 이룬다. 이 서분은 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로 시작하여 그 경을 설한 때와 장소, 설법의 대상 등 일체의 주변 여건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처의 대승적인 가르침이 근대 한국사회와 만나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3·1운동이었다. 즉 남녀노소와 승속을 막론하고 전 민족적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한 사건이었다. 또, 여기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속의 한용운과 백용성의 존재만으로도 민족대표 그 자체가 사부대중의 축소판이었다.

올해는 이와 같은 3·1운동이 일어 난지 한 세기가 되는 해이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불교계가 참여한 이 범민족적인 거사 속에서 법보사찰인 해인사의 사부대중이 불교의 대승적인 진리를 3·1운동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먼저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연구한 것을 단행본과 연구논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단행본

3·1운동을 조사 혹은 연구하여 수록한 단행본들은 전반적인 불교계의 3·1운동을 다루면서 해인사와 관련된 기록을 부분적으로 수록하였다. 그 기록된 내용과 그 근거사료를 찾아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3·1운동비사』(1959년)

3·1운동에 대하여 이병헌이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단행본으로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의 취조서 및 관련 재판기록들과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해인사출신 백용성의 취조서(pp.137-144)와 한용운의 취조서(pp.601-620)가 수록되어 있고, 더불어 2면에 걸쳐 해인사 3·1운동에 대한 만세시위와 경찰에 의한 시위해산을 짧게 서술하였다.¹⁾

② 『삼일운동실록』(1969년)

이용락이 위의 『3·1운동비사』 등에 기초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해 처음으로 작은 단일항목인 ‘(三十三) 海印寺와三一運動’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²⁾ 이용락은 여타의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崔凡述 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p.683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효당 최범술³⁾도 『三·一運動과 海印寺』라는 제목으로 약 80장의 원고를 써서 『獨立秘話』라는 책에 수록하였음을 밝혔는데,⁴⁾ 이는 이용락의 『삼일운동실록』인 것으로 보인다.

③ 『독립운동사(삼일운동사(하))』 3(1971년)

당시 문교부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하였으며, 총서체제였다. 주로 이용락의 『삼일운동실록』의 pp.680-683 등을 근거로 하여 해인사의 3·1운동을 작은 단일항목인 ‘8 해인사(海印寺)의 학생 독립운동’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⁵⁾

④ 『한민족독립운동사』 3(1988년)

1)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pp.946-947.

2) 이용락, 『삼일운동실록』, 三一同志會, 1969, pp.680-683.

3) 본고에서는 효당 최범술을 ‘효당’으로 약칭한다.

4) 「청춘은 아름다워라」14화에서 효당은 ‘다시 대한불교신문사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원고를 同誌에 싣기도 했다’라고 밝혔다.[체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14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559].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독립운동사 - 삼일운동사(하)』3,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pp.336-339.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가 주도하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총서체제로 편찬하였다. 앞의 책들처럼 단일 항목은 아니었지만, 1971년의 『독립운동사』3권의 해인사 편을 포함하는 pp.323-340을 참조하였다.⁶⁾

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2008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주도하여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총서체제로 편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 2, 3권과 효당의 「청춘은 아름다워라」를 참조한 김순석 등의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였다.⁷⁾

그 외에도 같은 총서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2009년)의 p.292 등에 앞서 이용락이 쓴 『삼일운동실록』의 pp.674-675를 참고하여 짧게 기술하였다.

2) 연구논문

지금까지 불교계 3·1운동연구에 있어서 중요 연구들은 대체로 3·1운동 당시 해인사의 항일활동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⁸⁾ 이것은 앞서 3·1운동에 대하여 단행본으로 출간된 연구서들이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효당 이외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3·1운동을 기록한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광복이전 해인사의 말사였던 다솔사를 중심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의 항일활동을 3·1운동이후의 해인사와 연관하여 연구한 것들이 있다.⁹⁾ 이것은 그 무렵에 효당

6) 최근무,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3, 국사편찬위원회, 1988, pp.392-393.

7) 김광식,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173-176.

8) 안계현, 「三一運動과 佛敎界」, 『三一運動50周年記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pp.271-280. ; 김순석, 「3·1운동기 불교계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pp.9-36.

9) 김상현, 「曉堂 崔凡述(1904-1979)의 獨立運動」, 『동국사학』 4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0, pp.405-432. ; 강미자, 「김법린의 민족운동과 대중불교운동」, 『大覺思想』 14, 大覺思想研究院, 2010, pp.171-211. ; 최재목, 「효당과 다솔사의 김범부」,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pp.88-117. ; 제점숙, 「일제하 효당 최범술의

최범술과 함께 활동한 범산 김법린, 범부 김정설 등에 관한 각종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해인사의 3·1운동과 더불어 효당의 유년기부터 광복이전까지 항일운동을 포함하는 연구도 있다.¹⁰⁾

II. 사료의 검토

앞서의 여러 가지 선행연구인 단행본 및 연구논문들은 효당을 비롯한 여러 관련 인물들의 개인 회고와 각종 관련 기록들을 근거 사료로 참조하였다. 이 사료들은 개인 회고, 국내 보도자료, 일제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회고

먼저 불교계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해인사와 관련하여 언급한 개인의 기록이나 회고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효당 최범술 이전의 회고

① 김법린(1899~1964)

김법린은 광복이 되자 1946년에 발행된 잡지 <신천지> 3월호(통권 2호, 제1권 제2호)와 역시 같은 해 3월의 잡지 <신생>에 불교계 3·1운동

일본유학과 교육활동,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pp.57-87. ; 김광식, 「다술사와 항일 비밀결사 卍黨 -한용운, 최범술, 김범부, 김동리 역사의 단면-」, 『佛敎研究』48, 불교연구원, 2010, pp.1-34.

10) 최화정, 「曉堂 崔凡述의 삶과 佛敎」,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pp.10-56.

에 대한 회고를 발표하였다.¹¹⁾ 이 중에 부분적으로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나온다.

② 김상호(1889~1965)

김상호는 1964년 8월 23일 <대한불교>에 3·1운동에서 광복이전까지의 불교계 항일운동을 3·1운동과 불교계와 상해 임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佛教抗日鬪爭回顧」를 기술하였다.¹²⁾ 여기에도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나온다.

③ 백성욱(1897~1981)

백성욱은 1966년 6월 20일 <동대신문>에 중앙학림에서 3·1운동을 모의한 것으로부터 지방으로 전해진 일화를 회상한 「三·一運動과 中央學林」을 수록하였다. 여기서 해인사의 3·1운동과 이것이 만당으로까지 이어졌음을 간략히 서술하였다.¹³⁾

2) 효당 최범술(1904~1979)¹⁴⁾의 회고

효당 최범술은 1969년 2월경부터 「三·一運動과 海印寺」를 <대한불교>에 4회에 걸쳐 기고하였다.¹⁵⁾ 여기서 그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당시에

11)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教」, <新天地>, 서울신문사, 1946.3, pp.74-81. ; 金法麟, 「三一運動과 佛教」, <新生>, 신생사, 1946.3, pp.15-20.

12) 김광식·박미경 編,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자료집1(신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7, pp.159-163.

13) 위의 책, pp.174-177.

14) 그는 해방 이후 해인사 주지, 제헌국회의원, 해인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한 승려 출신이자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인, 茶道人이다. 젊은 시절 이름은 英煥, 당호는 錦峯, 법호는 曉堂. 경상남도 사천 출신으로 1915년 곤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사천 다솔사로 출가하였다. 1917년 해인사지방학에 입학하고, 임환경을 은사로 수계를 받았다.

15) 효당 최범술이 <대한불교>에 기고한 바는 아래와 같다.

①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1, <大韓佛教>제287호, 대한불교사, 1969년 2월 16일.

②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2, <大韓佛教>제288호, 대한불교사, 1969년 2월 23일.

③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3, <大韓佛教>제289호, 대한불교사, 1969년 3

3·1운동이 해인학림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된 바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3·1운동의 전개와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후 효당은 1975년 1월 26일부터 부산의 <국제신보>에 개인회고록인 「청춘은 아름다와라」를 약 50회 가량 연재하면서 그가 성장하면서 겪은 광복이전까지의 항일투쟁사를 기록하였는데,¹⁶⁾ 여기에도 비교적 상세히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록 반세기 뒤의 회고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효당의 기록들은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한 전모를 당시 해인사지방학림에 소속된 학인의 입장, 즉 내재적 관점으로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효당의 「三·一運動과 海印寺」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3·1운동을 기록한 유일한 것이었다. 물론 이후에 김법린의 사후에 나온 회고¹⁷⁾와 김관호의 회고가 있다.¹⁸⁾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효당의 회고이후에 나온 것으로 중앙에서 활약한 한용운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 국내 신문보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의 유일한 한국어로 된 국내 일간지는 1910년 8월 30일부터 발행되었던 일제의 <매일신보>였다. 그러나 3·1운동이후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되었고, 같은 해 4월 1일에는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이 신문들을 중심으로 해인사 3·1운동에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 2일.

④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4, <大韓佛敎>제290호, 대한불교사, 1969년 3월 9일.

※ 재수록본은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388-403 참조.

16)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와라」,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514-659.

17) 김법린, 「3·1운동과 萬海」, <法輪> 126, 월간법륜사, 1979.8, pp.64-66.

18) 김관호, 「근해와 三·一運動-민족정신과 불교」, <金剛> 50, 월간금강사, 1989.3, pp.15-22.

1) 3·1운동에 대한 해인사 관련기사

3·1운동 당시 1919년 3월 7일자 <매일신보>에는 파고다공원에서 낭독된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 해인사출신 승려 백용성이 민족대표 33인으로 한용운과 함께 참여하였음을 전하고 있다.¹⁹⁾ 또 같은 해 8월 3일자 보도에는 경성지방법원에서 8월 1일에 예심이 종결되어 백용성과 한용운을 포함하는 손병희 등 47인이 내란죄의 명목으로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음을 전하고 있다.²⁰⁾

이후 <동아일보>에 1920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고등법원의 3·1운동 주동자 47인의 예심결정서가 보도되었는데, 여기서 한용운 등과 해인사출신 백용성(백상규)의 3·1운동에 대한 모의내용이 요약되어 있다.²¹⁾

2) 3·1운동 이후 해인사관련 중요기사

3·1운동이후에는 해인사출신 관련자들인 박달준, 김봉률, 김장윤, 김경환 등의 군자금모집을 위한 활동기록들이 꾸준히 나온다. 이들은 해인학림의 학생들로 3·1운동이후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서 귀국하였다.²²⁾ 그 뒤 국내에서 군자금의 모집을 위한 활동 중에 박달준, 김봉률, 김경환이 먼저 검거되었다.²³⁾ 그러다가 이들 중 탈출한 김

19)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編, 「毎日申報 1919.3.7 高等警察關係年表」,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4, 문교부, 1966, pp.330-331.

20) 위의 책, pp.501-504.

21)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編, 「1919年 特豫 第1號 同 第5號 高等法院管轄裁判所決定書謄本」(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 결정),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5, 문교부, 1970, pp.120-142.

22)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392-393, pp.401-402.

23) 「寺刹로 다니며 軍資請求」,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1년 3월 4일, 석간 3면. ; 「독립운동하던 승려 등의 공판, 朴達俊 金奉律은 무관학교졸업생으로 군자금 모아 가정부에」,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21년 3월 19일, 석간 3면. ; 「寺刹로 다니며 軍資金을 請求한 金景煥 金奉律 金章允 등 삼명, 미구에 공판에 붙쳐」,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1년 8월 10일, 석간 3면. ; 「寺刹에서 軍資金 모집한 자의 판결」,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1년 8월 25일, 석간 3면.

장운은 1927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해인사와 범어사 등지에서 역시 군자금 모집하다가 10월 9일에 산청경찰서에 검거되어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²⁴⁾

3. 일제 공문서

또한 일제가 해인사 3·1운동과 관련하여 총독부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기록도 국내에 일부 존재한다. 그 대강은 아래와 같다.

1) 소요사건에 대한 도장관 보고철

당시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²⁵⁾에게 경남도장관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919년 3월 31일 오전 11시 무렵에 해인사 홍하문 밖에서 약 150여명이 만세를 외쳐서 경찰관들이 해산시켰는데 군중 속에 해인사학생들과 승려들이 섞여있었다.²⁶⁾ 그리고 이후 8월에 평안북도장관이 총독부 내무장관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에게 경남 고령 우체국에서 가명으로 묘향산 보현사에 발송된 불온문서와 관련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관할인 해인사부속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排日의 분위기가 강하다고 지적하였다.²⁷⁾

24) 「鍾路署에 檢舉 僧侶軍資員」,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7년 10월 15일자, 석간 2면. ;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編, 「1927년 10월 9일 일찍이 滿洲로 건너가 新興學校를」,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8, 문교부, 1970, p.572.

25) 생몰연대(1850~1924). 2대 조선총독(1916~1919년)을 지냈다.

26) 朝鮮總督府 內秘補 467; 慶南地親202號「騷擾ニ關スル件(第四報)」,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冊ノ內四』(발신일: 1919년 4월 7일)[※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안계현, 「三·一運動과 佛敎界」, 『三·一運動50周年記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p.279.

27) 秘第572號; 朝鮮總督府 內秘補 1440, 「不穩文書ニ關スル件」,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冊ノ內七』(발신일: 1919년 8월 7일)[※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2) 일본 외무성기록

또한 1919년 4월 당시 일본 외무성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19년 3월 31일 해인사에서 약 150여명이 독립만세를 외치자 경찰관들이 위협하고 총을 쏘아 해산시켰다.²⁸⁾ 또 4월 12일에는 경북 김천군에서 해인사부속 학교 학생 3인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시위운동을 조장하였고, 이에 2인을 체포하여 조사하였음을 보고하였다.²⁹⁾

III. 해인사의 독립운동

1. 불교계

한국의 근대 불교사에 있어서 그 前期에 해당하는 1870년대의 문호개방으로부터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불교계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측면과 불교계 자체의 근대적 혁신운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양상이 전개되었다. 강화도조약에 의한 문호개방은 일본불교에 의한 종교적 침투로 나타났고, 국내 불교계는 그 영향으로 자체 내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근대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정체성의 수호라는 현실적 고민 사이의 갈등이었다.³⁰⁾ 그 침투의 정점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사찰령의 강제적 시행이었고, 그러한 갈등은 사찰령의 시행 직전에 국내불교계의 입제종 설립운동으로 먼저 표면화되었다.

28) 高第9833號; 秘受04056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七報)」,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四』(발신일: 1919년 4월 4일; 수신일: 1919년 4월 8일)[※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29) 騷密第550號; 秘受04750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五十三報)」,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五』(발신일: 1919년 4월 20일; 수신일: 1919년 4월 24일)[※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30) 김창수,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543-546.

1) 사찰령과 임제종운동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조선총독부가 불교계에 대하여 1911년 6월 3일에 반포한 「朝鮮總督府制令」 제7호인 사찰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모든 사찰은 조선총독에 의해 직접적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통제되는 것이었다. 전문 7개조로 이루어진 사찰령의 주요내용은 사찰의 병합·이전·폐지·명칭변경 및 사찰에 속하는 재산은 동산·부동산을 막론하고 재산의 처분은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基址와 伽藍은 지방장관의 허가가 없이 傳法이나 布教, 法要의 執行, 僧尼, 止住의 목적이 아닌 사용을 금하였다.

더 나아가 1911년 7월 8일에는 총독부령 제 84호에 의거하여 「寺刹令 施行規則」 제8조를 발표하여 사찰령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사찰을 30개 본산의 본사와 말사로 구분함으로써 본사의 주지는 총독에게 허가를 얻고 말사의 주지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또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주지에게 범죄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직무의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인가가 취소된 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찰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³¹⁾

그 결과, 사찰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한국불교에 대한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제가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한국불교에 대한 식민지의 종속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구한말인 1908년 3월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불교계의 단일교단인 원종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비밀리에 일본 조동종에 이를 의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당시 원종의 중정인 이회광과 종단의 지도부는 송병준과 일본승려들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비밀리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31) 김창수,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pp.495-498.

그러나 당시 국내의 불교계는 이것을 일종의 매종행위로 규정하고 한용운이 초기에 주도하여 박한영, 도진호, 송종현, 김종래, 장기립 등의 지리산 일대 승려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본격적으로 송광사를 근거지로 하여 1911년 초부터 1912년 8월까지 임제종의 건설을 위한 움직임으로 그 상징은 해인사출신 백용성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임제종의 건설을 위한 모금을 불허하였고 표면적으로는 원종과 임제종의 현판을 강제로 철거하여 이 운동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중심인물인 한용운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하였다.³²⁾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당시 국내 불교계의 암울한 상황은 민족적인 불행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고 임제종운동을 일으킨 주체들인 한용운과 백용성 등은 일반 대중의 정서에 부응하여 3·1운동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었다.

2) 3·1운동의 모의

3·1운동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19년 1월 20일경이었다. 이날 최린, 오세창, 권동진은 천도교의 손병희를 찾아가 국내외의 정세를 토론하면서 3·1운동에 대한 모의를 하였다. 같은 천도교도인 이들 3인은 1918년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을 <오사카 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등을 통해 접하고 1918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만나 서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에게도 이런 뜻을 전한 것이었다.³³⁾

이들 중 최린은 한용운이 1908년 일본유학시절부터 서로 뜻이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 결과 한용운을 통해 같은 불교계의 백용성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나아가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보고 공약삼장을 추가하게 되었다.³⁴⁾ 특히 그가 추가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

32) 김광식,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154-157.

33) 신국주,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pp.226-227.

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견을 쾌히 발표하라.”라고 하는 공약삼장 제2항은 3·1운동이후에 이어진 독립운동의 근거가 되었다.³⁵⁾

2. 해인학림

1) 해인사의 근대적 교육기관

이 무렵 대본산 해인사는 친일거두었던 이회광이 주지로 있었다. 이 당시 해인사에 소속된 사찰들로는 64개의 직할인 말사가 예속되었던 대찰로서 소속된 승려의 수가 약 1천명 정도였다.³⁶⁾ 당시 이러한 해인사의 교세는 당시 조선불교의 1/10규모였다.³⁷⁾

◎ 본산 해인사 소속말사

경남 하동: 雙溪寺.

경남 함양: 靈覺寺, 龍秋寺, 碧松寺, 法華寺, 靈源寺.

경남 진주: 靑谷寺, 護國寺.

34) 김광식,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168-172. ; “...여기에서 한용운에 대한 최린의 자서전에서의 언급과 재판시의 진술내용이 다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상기한 최린의 자서전은 1949년에 쓰여진 것이다. 즉 해방 후에 쓰여진 것으로서 최린은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중추원 참의를 수락하고 친일 어용단체인 時中會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침략정책에 일조를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한용운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시간의 사정이 자서전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신국주,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p.237 참조].

35) 신국주,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pp.233-234.

36) “...이때의 해인사 거주 승려들은 남승이 2백여 명, 여승도 1백 50여 명 이상이 되었다. 이 해인사에 소속되는 방아 찻는 물방아집이 여덟이었고, 두부 만드는 두부집도 셋이나 되었다. 이때 해인사 경내에 다른 일반 인가는 한 집도 없었으며 단 한 채의 마방집이라는 것이 있었다...”[채정복 編, 「정춘은 아름다워라」 6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536]

37)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1, <大韓佛敎> 제287호, 대한불교사, 1969년 2월 16일 ;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388-389.

- 경남 사천: 多率寺.
- 경남 남해: 龍門寺, 花芳寺.
- 경북 김천: 靑岩寺, 直指寺.
- 경북 산청: 大源寺.
- 경북 선산: 桃李寺.
- 경북 성주: 禪石寺.
- 진북 남원: 實相寺係 直末寺들.

이 무렵 당시 초대 조선총독의 신임을 받았던 주지 이회광의 일과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승적을 가졌던 자들로서 일제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해인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산체제의 해인사에서 가장 강하게 이들에게 반발하던 세력들은 지리산일대의 사찰에서 온 출신들이었다.³⁸⁾ 한용운이 초기에 주도한 임제종운동에 호응했던 이들은 이러한 시국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동시에 진보적으로 사회계몽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로 대한제국시대에 설립한 사립 해명학교³⁹⁾가 해인보통학교⁴⁰⁾로 개칭하여 발족되었다.⁴¹⁾

이후 효당이 입학하던 1917년에 ‘해인사지방학림’이라는 4년제 고등보통학교 전과정(중등교육)과 불교의 교육과정인 보통과(四集), 중등과(四

38)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p.389-390.

39) 1908년 대한제국시절에 대한학회에 해명학교 교감 김영해가 회비 10원을 보낸 사실이 있다.

“隆熙二年八月三十日下午二時에 特別任員會를 事務所에 開히고 會長 李恩雨氏가 登席헌 후에 書記가 名簿를 點檢헌니 出席員이 三十九人이라. …(중략)… 陝川 海印寺 海明學校에서 校監 金映海氏의 公函 及 金十圓을 送來헌 事를 會長이 公佈헌다.”[「會錄(任員會)」, <대한학회월보>제8호, 대한학회, 1908년 10월 25일 참조. ※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40) 동아일보에는 1921년 5월 14일의 합천 해인보통학교의 대운동회 기사가 있다.[「海印普校春期大運動會開催(陝川)」,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1년 5월 23일, 4면 4단]

41)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391.

敎)와 불교사(인도, 중국, 조선), 인명학 등을 덧붙여 학생에게 가르치는 해인사의 본·말사를 위한 공립교육기관이 설치되어있었는데 그 설치연도는 1915년경으로 보인다.⁴²⁾ 이러한 해인사에는 효당의 기록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부속학교들이 있었다.⁴³⁾

◎ 해인사 부속학교

해인사 지방학림(중등교육과정 4년): 약 90-100명(승려).

해인보통학교(초등과정 4년): 약 150-200명(일반인).

그 외 불교전문강원: 약 30명(승려).⁴⁴⁾

또한 이보다 먼저 중앙에는 본산 주지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1915년 명진학교(현 동국대 전신)의 후신인 ‘불교고등강숙’을 ‘불교중앙학림’으로 개편하여 동소문 밖의 혜화동에 있던 北關聖廟터에 이전하였다.⁴⁵⁾

42) 이에 대하여 효당은 “...그리고 1917년 4월초 경에 곤양 다솔사에서 합천 해인사 까지 삼백 리 되는 길을 걸어서 갔던 것이다. 그 때의 해인사는 초급학교로는 해인보통학교가 있어 학생은 2백 명이 넘었고, 고등보통학교 과정을 가르쳤다. 그 외에 불교과를 첨가하여 교수하는 지방학림이라는 4년제의 요즘 학제로 보아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쳐서 된 것 같은 정도의 학교가 설치되었는데 그 설립은 2년 전이라 한다...”라고 하여 해인사지방학림의 설치시기에 대하여 1915년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보통학교과정은 1911년 일제가 4년 과정으로 개편하여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으로 해인학림이었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와라」5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533]

43) 효당은 해인사교육과정에 대하여 1968년에 저술한 「三·一運動과 海印寺」에서는 지방학림(약 90명)과 보통학교(약 200여명)로 하였고, 1970년에 발표한 「萬海 韓龍雲선생」에서는 지방학림(약 100명)과 보통학교(약 150명)와 더불어 전문강원(약 30명)의 존재를 기술하였다.[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388]

44) 채정복 編, 「萬海 韓龍雲선생」,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404.

※ 원문은 <新東亞> 第75號, 동아일보사, 1970.11, pp.314-315에 수록됨.

45) 이에 대하여 효당은 ‘이회광은 해인사 주지인 동시에 30본산 연합회 위원장이며 이 불교중앙학림의 장으로 취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회광은 1907년 명진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910년 그 후신인 불교사범학교시절까지 재직하였다. 이 불교사범학교는 1914년 7월 본산주지회의 결정으로 불교고등강숙으로 개칭하였고, 1915년 다시 불교중앙학림이 되었다.

이 무렵 해인학림의 학인들은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재래의 불교전수강원을 졸업하고 온 이들이었는데 대부분이 효당보다 12-13세가 많아서 같은 나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⁴⁶⁾

효당이 기술한 이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⁴⁷⁾

◎ 본산 출신

황해도 貝葉寺와 그 말사인 神光寺: 洪泰賢.

충북 法住寺: 朴允成.

충남 麻谷寺: 禹敬熙, 羅慶華.

경북 桐華寺: 朴汶星 등.

부산 梵魚寺: 金景煥 등.

◎ 해인사 및 末寺 출신

海印寺: 朴德潤, 金奉律, 許世哲, 河世明, 文奇錫 등 20여명.

雙溪寺: 宋福晩(후에 宋奉禹로 개명), 申文守, 孫福龍, 孫永洙, 申成龍, 朴根燮, 張道煥, 丁鳳允, 趙인순, 朴應天 등 14-15인.

大源寺: 孫德周, 金章允, 姜德秀, 金界樞, 金一樞, 朴良五, 金鳳翼, 金正玉 등 12-13인.

靑岩寺: 金道運, 李鳳政, 南成엽 등 12-13인.

靑谷寺: 姜正浩(뒤에 姜在鎬로 개명), 金正엽, 鄭永祚.

碧松寺: 奇相燮, 李宗仁, 李仁洪 등 5-6인.

靈源寺: 林眞宗(3·1운동관련 중요인사 48인 중 林圭의 아들)⁴⁸⁾ 등 5인.

46)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392.

47)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 2, <大韓佛敎> 제288호, 대한불교사, 1969년 2월 23일. ;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392-393.

48) 원문에 '33인 중 임규선생아들'은 오류이다. 임규는 민족대표 33인이 아닌 3·1운동에 깊이 관여한 중요인사 48인 중의 한명이었다.[「금일 공판 시작되는 朝鮮民族代表 사십팔인의 肖像: 孫秉熙, 崔麟, 權東鎮, 吳世昌, 林禮煥, 權秉惠, 李鍾一, 羅仁協, 洪基兆, 金完圭, 羅龍煥, 李鍾勳, 洪秉箕, 朴準承, 李寅煥, 朴熙道, 崔聖模, 申洪植, 梁甸伯, 李明龍, 吉善宙, 李甲成, 金昌俊, 李弼柱, 吳華英, 朴東完, 鄭春洙, 申錫九, 韓龍雲, 白相奎, 安世桓, 林圭, 金智煥, 崔南善, 咸台永, 宋鎮禹, 鄭魯混,

靈覺寺: 林致洙 외 3인.
 龍湫寺: 李學眞 외 2인,
 龍門寺: 朴宗圭, 諸戒賢 등 5인.
 花芳寺: 朴在植, 鄭제기.
 多率寺: 崔凡述, 金敬洙.

여기서 주목해야할 인물은 해인사 말사인 영원사 출신 해인사 학인인 임진종의 존재이다. 그는 뒤에 1919년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통고문 3통과 선언서를 받아 일본 수상과 의회에 우송하였던 임규의 아들이었다.

또한 해인사의 보통학교 과정에는 일반인으로 향촌의 儒林출신의 유력자제들이 신식교육을 받기위해 다니고 있었다.⁴⁹⁾ 이것은 당시에 드물게 지방에서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은 효당보다 연상인 20대가 많아서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았었다.

효당이 기억한 그들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인(俗人)

居昌邑: 愼씨들 중에 신모 외.
 高靈邑: 申喆休, 申蘭休, 裴鎬吉, 丁奉鎭, 이병직 등 近20명.
 陝川, 妙山 등지: 張性均형제, 郭勉字문하 대다수 儒生들.

특히 여기서 儒學者인 곽면우는 뒤에 한용운 측에서 민족대표로 大官 경력을 가진 그에게 동참을 구하였다. 그러나 거창 고향집에 머무르던

玄相允, 李景燮, 韓秉益, 金弘奎, 金道泰, 朴寅浩, 盧憲容, 金世煥, 康基德, 金元璧, 劉如大],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0년 7월 12일, 석간 3면 10단]

49) 효당의 회고에는 “이들 학생들은 경상남북도각지에서 소위 양반 노릇하던 자제들이나 부호집자제들이다. 그들은 신학문 교육을 업신여기다 늦게나마 新學問을 배워야겠다는 뜻으로 이 산중인 海印寺를 찾아와 절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하였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와라」6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536]

그의 답장이 늦어져서 독립선언서에는 그의 서명이 수록되지는 못하였다.⁵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해인사 보통학교에 다녔던 일반인인 학생들의 배경과 성향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민족의식의 고취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해인사 부속학교의 한국인 교사들은 사상이 특수한 사람들이 지망해서 왔었다고 효당은 술회하였다. 이들은 보통학교에 3명이 있었고, 지방학림의 일반과정에도 3명의 교사가 있었다. 특히 이 지방학림의 3인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그 외에 주로 일본 조동종대학에서 공부한 불교과정을 가르치는 3명이 있었다.⁵¹⁾

효당이 기술한 해인사 부속학교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다.⁵²⁾

◎ 해인사 지방학림

- * 한국인 불교과정: 白初月(승려), 金月宇(승려), 金月宙(승려), 金包光
일반과정: 曹學乳, 金永周, 金晷鉉
- * 일본인: 原友一郎(대마도 출신으로 60세 정도)⁵³⁾

◎ 해인보통학교

- * 한국인: 鄭光好(制憲議員, 光州출신)⁵⁴⁾, 李鉉台, 신학能, 徐光範
- * 일본인: 宮澤(40세 정도).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효당의 기억으로 뒤에 청주감옥에서 옥사를 한 백초월과 함께 김포광이 해인사 지방학림의 교사로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영원사 출신이었던 두 사람은 3·1운동 직후인 6월에 백초월의 지시

50)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敎」, <新生>, 신생사, 1946.3, p.16.

51)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6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535.

52)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p.393-394.

53) 「청춘은 아름다워라」 6화에는 '原友三郎'으로 나온다.[위의 책, p.535]

54) 원문에는 '鄭光浩'이나 '鄭光好'의 오류이다.[「國議선거결과」, <자유신문>, 자유신문사, 1948년 5월 14일, 1면 4단 참조]

로 김포광이 상해임정에 군자금 3천원을 전달하였다. 원래 백초월은 1908년 무렵부터 해인사 강원에서 강사를 지냈다.⁵⁵⁾ 게다가 이들은 임규의 아들인 임진종과 같은 함양 영원사 출신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영원사는 이후 만당의 근거지가 되는 사천 다술사와 함께 해인사에 소속된 또 다른 항일의 근거지였다고 짐작된다.

또한 광주 출신인 정광호는 1919년 1월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재학 중에 최팔용과 2·8독립선언을 계획하였다. 그는 그해 2월 2일 2·8독립선언문을 휴대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3·1운동에 참가한 후에 상해 임정으로 가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광복 후에 그는 효당과 함께 제헌국회에 진출하였다.

특히 이 정광호의 존재는 해인사의 3·1운동이 단순한 참가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영원사를 중심으로 하여 백초월과 김포광은 제자인 임진종을 통해서 3·1운동의 중요 인물인 임규와 연결된다. 또한 백초월은 해인사 출신 김봉신을 통해 한용운과도 연결된다.⁵⁶⁾

이러한 성향을 가진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가 되면 정해놓고 토론회와 명사들을 초청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러한 배경은 효당이 처음으로 한용운을 만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⁵⁷⁾ 이때가 1918년 10월 중순으로 효당은 지방학림의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여기서 한용운은 ‘청년의 갈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부처님이건 하

55) 김광식, 『백초월』, 민족사, 2014, p.52, p.122.

56)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인 박달준의 이력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중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앙학림의 학인으로 서울에서 전개한 3·1운동 및 해인사 만세운동의 주역 김봉신이 백초월의 지휘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백초월은 민족대표인 한용운과 백용성의 지휘하에 있었다는 것이다…”[위의 책, p.94]

57) 효당의 회고에는 “이 같은 여건의 환경 속에서 이 해인사 경내에 마련된 두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어떤 일상생활을 하였을까? 두 학교를 합하여 삼백 명 가까운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가 되면 정해놓고 한 번은 討論會한 번은 講演會 등으로 학생 각자가 각기 지정된 토론자와 연사를 모셔다 밤 열 시까지 집회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하였다.[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395]

느님이건 또한 그 누구에게도 동정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당시 15세인⁵⁸⁾ 효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⁵⁹⁾ 이에 대해 청남 오제봉도 한용운이 해인사에서 ‘禪과 인생’을 강의하였으며, 강원의 학생들에게 “옥은 부서져도 아름답다.”라며 항일정신을 일깨웠음을 언론에 회고하였다.⁶⁰⁾ 그가 이러한 만해를 만났던 시기는 1920년대로 보인다.⁶¹⁾

3. 해인사의 3·1운동

이 무렵 일본 경찰의 주재소가 합천군 안에는 三嘉, 草溪, 해인사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⁶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인사에 독립선언서가 입수되었다.

1) 해인사

(1) 독립선언서의 입수

이러한 독립선언서가 1919년 3월 1일 직후 해인사에 전달된 경로는 효당의 「三·一運動과 海印寺」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⁶³⁾

58) 효당은 양력 1904년 7월 9일 생으로 당시 아직 만15세였다.

59) 채정복 編, 「萬海 韓龍雲선생」,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404. ; <新東亞> 第75號, 동아일보사, 1970.11, p.314.

60) 「『釜山書道』지켜온 墨香일생 원로서예가 吳濟峰씨」,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91년 8월 13일, 석간 15면 문화.

61) 효당의 師弟인 청남은 1919년에 해인사에서 같은 스승인 임환경 밑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1925년에 사미과와 사집과를 수료하였고, 1927년에 사교과와 대교과를 수료하였다.[오제봉, 「청남오제봉연보」, 『靑南古道觀』, 일지사, 1984, p.3 참조]

62)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394. ;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6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537.

63)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p.396-397.

첫째, 쌍계사에서 온 송복만이 3월 초에 서울에 다녀오면서 한용운의 지휘를 받던 쌍계사측 서울 유학생 도진호로부터 전수 받아 오게 된 것을 강재호를 위시하여 여러 동지들이 알게 되었다.

둘째, 해인사에서 서울 불교중앙학림에 유학하던 김봉신으로부터 해인사의 김봉률에게 입수된 것을 김장운, 박덕운, 손덕주 등이 알게 되었다.

셋째, 쌍계사에서 서울 불교중앙학림에 유학 간 김용기로부터 박근섭에게 입수된 것을 여러 동지들이 알게 되었다.

넷째, 효당의 조카인 최원형이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효당에게 보내온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로들의 도착순서에 대해서는 효당은 그의 「청춘은 아름다워라」 7화에서 이를 역순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⁶⁴⁾ 반면에 효당이 「三·一運動과 海印寺」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한 경로 위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인사가 선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는 백초월, 김포광, 정광호 등의 교사들과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학생들, 또 한용운과 같은 외부 강연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2) 모의 및 실행

이렇게 독립선언서가 해인사에 도착하자 효당은 강재호, 송복만과 함께 해인사에 주재하는 일본경찰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극비리에 약 200여리 떨어진 대구로 밤낮없이 걸어갔다. 그들은 여러 군대의 지물상들을 돌아다니면서 美濃紙 수만 매를 사서 모은 후에 이를 각자가 나누

64) “...한편 3월 1일 직후 우리 해인사에 독립 선언서가 처음 오게 된 것은 나의 조카로서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최원형이 부쳐온 것이었다. 둘째는 하동 쌍계사의 경성 유학생 김용기로부터 박근섭에게, 셋째는 해인사 유학생 김봉신으로부터 김봉률에게 우송되어온 것이었다. 姜在鎬(前부산사범대학장)와 송봉우 등은 직접 서울 가서 입수하여온 독립선언서를 얻게 되었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와라」 7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p.538-539]

어지고, 짐꾼을 시켜서 걸어서 해인사로 다시 돌아왔다.⁶⁵⁾ 그리고는 이들은 해인사와 학교에 비치되었던 등사판으로 몰래 교사였던 극락전의 밑실과 큰절에 있는 관음전의 큰방 다락에서 단시간 내에 등사하였는데 미농지 3매로 선언서 1장을 만들었다. 이때 해인사에서 등사한 선언서는 약 1만 부였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3천 백여 부 정도였다.⁶⁶⁾

이와 같이 선언서 등사작업이 끝난 후에 이들 지도급 간부 학생들은 엄밀히 검토한 끝에 총 3백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대표자 23명으로 하여금 3월 7일 오후 2시 경에 해인사 팔만대장경각 뒷산 기슭의 조용한 곳에 모이게 하였고 그들이 행동할 모든 방안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⁶⁷⁾

첫째, 각 행동대를 3인으로 구성하여 이를 단위로 그 활동지역을 결정한다.

둘째, 각 행동대에 할당할 선언서의 분량을 정한다.

셋째, 각지로 분과된 대원은 일정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 각자의 경과를 보고한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각 대원은 이 조직의 전체 내용을 극비에 붙이고 최후까지 그 한 사람의 위험에 그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그 다음 날부터 각자의 임무에 따라 세 사람씩 하

65) 구입한 미농지의 수량에 대하여 「三·一運動과 海印寺」에는 3만여 부로 나오고, 「청춘은 아름다워라」7화에는 만 5천부로 나온다.[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397. ;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6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539]

66) 등사된 선언서의 수량에 대하여 「三·一運動과 海印寺」에는 만여 부로 나오고, 「청춘은 아름다워라」7화에는 3천 백여 부로 나온다. 이를 비교해 볼 때, 대표자 23인이 각자 백여 부의 선언서를 나누어가졌다면 실제로 등사되어 배포된 숫자는 3천 여부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397. ;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6화,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540]

67)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1, 민족사, 2013, p.398.

나의 행동대가 되어 독립선언서 약 1백 벌씩을 각자 가지고 맡은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본 외무성의 보고에서 실제로 경북 김천군에서 3인의 행동대가 활동 중에 2인이 체포된 사실로도 확인된다.

2) 寺外로의 전파

해인사의 학생들이 각 행동대별로 맡아서 파견된 곳은 아래와 같았다.⁶⁸⁾

- ① 대구, 경주와 양산, 동래 방면을 거쳐 통영으로 오는 행동대.
- ② 합천의 초계와 삼가, 의령, 진주, 사천, 남해를 거쳐 통영으로 오는 행동대.
- ③ 거창, 함양, 남원 등 전북으로 가는 행동대.
- ④ 산청, 하동, 순천, 선암사, 송광사를 거쳐 여수로 가서 통영으로 오는 행동대.
- ⑤ 경북 동화사에서 온 권칭학을 중심으로 한 3명으로 대구, 달성, 영천, 동화사, 은혜사를 거쳐 예천 용문사와 안동 방면으로 가는 행동대.
- ⑥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온 박재성이 중심으로 충북 일대를 도는 행동대.
- ⑦ 충남 마곡사에서 온 우경조, 나경화 등으로 공주, 마곡사, 부여 등 충남 일대를 도는 행동대.
- ⑧ 황해도 해주 신광사에서 온 홍태현이 중심이 되어 황해도, 평안도 일대를 도는 행동대.
- ⑨ 석왕사에서 온 박창두 등으로 함경남도를 도는 행동대.

특히 해인사에서 합천, 삼가, 초계, 의령, 진주, 사천, 곤양, 하동일대를 맡은 송복만, 손복용, 효당은 합천읍에서 박운구, 이석순, 이정기 등에게 선언서를 수십 매씩 나누어주고, 합천 일대의 운동을 분담케 한 뒤에 다시 초계로 가서 노소용 등을 만났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리 들어온 지하

68)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6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540.

운동이 효력을 내어 삼가면사무소, 삼가주재소, 삼가우편국 등을 불태우고 파괴하여 큰 소동이 벌어졌다. 또 삼가에서 진주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끊어서 막고, 북으로는 합천 방면에서 오는 고개를 파괴하여 일본군이 활동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전선과 전주 등을 절단하고 파손하여 통신을 차단시키고 또 일제의 침략기관에 대한 응징을 하였다. 이때 일제의 수비대들은 거창으로부터 신원, 대병, 가회방면으로 들어와 무자비한 발포로 막대한 희생을 내게 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 다음가는 큰 사건이었다.⁶⁹⁾

그들은 다시 명령을 거쳐 진주로 잠입하여 조우제, 강달영 등을 극비리에 만나 진주의 상황을 듣고서, 가져간 선언서 수백 부를 나누어주었다. 이후 효당은 곤양과 서포로 가게 되고, 송복만과 손복용 등은 하동, 남해 등지로 갔다.

4. 3·1운동 이후

이처럼 3·1운동 이후 해인사에서 각 지방으로 파견되거나 흩어진 학생들은 현지에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갔지만, 그 중에는 서로 만나지 못해서 해인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식이 끊어진 경우도 많았다.⁷⁰⁾ 그러나 해인사에 소속된 교사들과 학생들의 항일의 분위기는 여전히 일제의 주목과 감시를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앞서 설명한 총독부에 대한 평

69) “...그 후 해인사에서는 새로 선언서 1만매를 인쇄한 다음 시위대를 3대로 나누어 대구까지 왕래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4월 16일, 해인사 입구 시위에서는 治爐面民과 더불어 시위군중 약 1만 명이 참가한 대대적인 시위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김창수, 국사편찬위원회 編,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p.510).

70) “...그 무렵 현존하는 姜在鎬일행은 다른 두 동지와 함께 대구, 경주 등지로 갔었다. 경주에서 日憲의 눈에 띄어 구사일생으로 어려운 지경을 탈출, 양산, 동래 등지를 거쳐 통영에서 만나기로 했다. 동지들을 기다렸으나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13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556).

북도장관의 보고였다. 여기서 1919년 8월에 경남 고령에서 가명으로 묘향산 보현사에 발송된 불온문서와 관련하여 발신지로 추정되는 해인사 부속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排日의 기운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불온하다고 본 것은 당시 불교계의 친일과를 배격하는 비난이었다.⁷¹⁾ 이후 이러한 해인사 학교 출신들의 항일투쟁은 점차 국내에서 만주와 일본 등지의 국외로까지 이어졌으며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해인사의 3·1운동 이후 지방 사찰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즉, 마곡사에서 온 우경조, 라경화는 충남 공주 일대의 각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법주사에서 온 박계성은 충북 법주사 본말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 온 김경환과 그 동지들은 선산, 상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김천 청암사에서 온 김도운, 이봉정, 남성엽은 김천, 성주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거창에서 온 신광옥과 신경재와 또 거창 가조출신인 김명수 등은 거창일대를 무대로 항일전선을 펼쳤다.

71) 비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務中儉尊大法氣體一向萬安耳洩區區下誠之至就伏白臣聞히니四方에無一事히니天下가太平春이라더니過然過然이로다俗談에一間茅屋도無一餘暇라더니況느그, 절은大本山이라더니어지그러일도업야일이업쓰면, 뒤房에서五漢을놓어더, 龍頭祭祀느하고잇제, 閉이라고朝鮮全部에다가公文호야五人을자부라고호느야, 아이고憤헤라切齒腐心호나, 너의놈들生命이온전호야千年古刹이이상호다, 엇지절이온전할스뻬락, 불이뒤, 꼭지에서, 네리공군다操心호고정신차러라.

倭놈이느그神祖고막, 씨기야, 뇨놈들, 너의놈들을엇지朝鮮쌍에살일소야, 목을비어大同江에씨질놈들글시똥生覺호여보아라, 倭놈이네압이라도그러치아니홀찌인디,況느그神祖고막씨긴디그러케熱心으로호느야臣은엇지다갓흔人種으로晝夜를苦生호고西比利亞찬바람에뻬트番을, 눈물노, 왓다갓다호느디엇지느그을살일수잇느야, 곳목을췌에大同江에더지리라”【驛密第550號; 秘受04750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五十三報)」,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五』(발신일: 1919년 4월 20일 ; 수신일: 1919년 4월 24일) 참조. ※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특히 고령 출신 신철휴, 신란휴, 이도직 등은 고령, 현풍, 대구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도 신철휴는 뒤에 초기 의열단의 결성에 가담하여 유명한 밀양사건의 일원이 되었다.⁷²⁾ 또한 한용운으로부터 해인사로 선언서를 전달한 김봉신 역시 의열단으로 추정되어 일제의 주목을 받았다.⁷³⁾

그리고 동화사로부터 와서 공부하던 권칭학 등은 달성, 영천 등지에 있는 동화사와 은혜사 등의 본사와 말사들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박근섭, 박웅천, 신문수, 정봉운 등은 쌍계사로부터 구례 화엄사를 비롯하여 송광사, 선암사, 강진, 보성, 담양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또 해주 신광사에서 온 홍태현은 또한 해주, 황주, 사리원 등의 자기 고향에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⁷⁴⁾

2) 국외

이러한 해인사의 학생들 중 강재호, 송복만, 김봉률, 손덕주, 박덕윤, 김장운 등 10여 명은 만주에서 이시영의 주도하에 독립군인 김좌진, 지청천 장군휘하에 들어가 신흥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만주에서 독립군에 편성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뒤 김봉률, 박덕윤, 김장운 등은 만주 고산자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본국에 돌아와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으다가 김봉률과 박덕윤이 검거되었다.

나아가 백초월은 상해임정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였고, 특히 그의 이러한 독립에 대한 열망은 ‘一心敎’사건으로 효당이 회고한 것처럼 나중에 그를 청주에서 옥사하게 만들었다.⁷⁵⁾

72) 김영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134, p.138, p.141, pp.149-150.

73)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1934) 참조.[※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74) 채정복 編, 「三・一運動과 海印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400-401.

75) 1918년, 청주 용화사에서 백초월은 『화엄경』의 ‘統萬法明一心, 群敎彙集’ 등에서 ‘一心’을 독립운동에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이 무렵 중요한 사건은 일본에서 유학중이던⁷⁶⁾ 효당이 1923년에 배편으로 직접 상해로 건너가서 현지의 多勿團⁷⁷⁾으로부터 폭탄을 입수하여 일본 동경으로 운송한 일이었다.⁷⁸⁾

그러나 그해 9월 1일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내부의 갈등으로 정보가 누설되어 일왕암살의 거사는 무위로 돌아가고 박렬 등과 함께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⁷⁹⁾ 다행히 박렬부부의 침묵으로⁸⁰⁾ 효당은 의열단원의 신분과 상해를 다녀온 행적이 발각되지 않았다. 또 이러한 관동대지진 속의 조선인학살의 혼란과 구속기간에도 일본 천태종승려인 사카도 치카이(坂戸智海) 등의 노력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⁸¹⁾ 이에 대하여

일심교, 『정토학연구』 17집, 한국정토학회, 2011, p.388 참조]

- 76) 1922년부터 일본유학중이던 효당은 이 무렵인 1923년에 立正中學校 3년에 편입하게 되었다.
- 77) 이 다물단에 대하여 효당은 “...滿洲각지와 北京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申采浩, 曹正煥, 諸氏는 ‘多勿團’이라는 결사대를 혼련시켰다. 이 多勿團출신이 바로 尹奉吉, 李奉昌, 白貞基등의 의열지사였다. 그 외에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日帝와 싸워 순국한 단원이 있었다. 이것을 당시 신문에서는 ‘朝鮮獨立義烈團’이라는 이름으로만 보도되었다”라고 회고하였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24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588-589]
- 78) 이에 대하여 효당은 “박렬이 이미 上海에 연락되어 있던 곳을 알려주어 나는 돈 1천 원을 갖고 九州長崎에서 2주일간 上海로 오가는 배편을 살폈다...(중략)... 上海에 내려 연락했던 多勿團동지로부터 받은 폭탄이 든 작은 상자를 중국 음식점에 옮겨 두었다가 그 선원에게 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협력을 얻어 무사히 東京까지 운반했던 것이다.”라고 회고하였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21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579]
- 79)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31-35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608-619.
- 80) 이에 대해서 효당은 “...그런데 박렬도 후미코도 일체 나에 대한 질문에는 나와 꼭 같은 말 이외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굳이 물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묻는가 하고 대들었을 뿐이었다. 나도 그 후에 누차 그들이 물을 경우는 물은 말을 거듭 묻느냐고 강하게 답하고, 그밖에 어떤 질문에도 나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40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632]
- 81)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38-40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626-629, pp.631-633. ; 채정복 編, 「잊지 못할 日本人」,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505. ; 이 사카도 치카이의 자세한 행적은 제점숙이 쓴 「일제하 효당 최범술의 일본유학과 교육활동」의 pp.61-63 참조.

당시 박렬의 변호인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는 일제가 망한 후 1946년에 쓴 『運命の勝利者 朴烈』의 p.104에서 상해에서 폭탄입수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과 함께 의열단원인 효당(당시 최영환)이 상해를 다녀온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 같은 책의 p.172에서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탄의 입수경로를 박렬이 예심에서 숨겼음을 밝혔다.⁸²⁾

IV. 3·1운동의 영향

1. 만당의 결성

그 뒤 1930년 5월 한용운을 위주로 비밀리에 만당이 결성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3·1운동에 참가하여 한용운을 도와서 불교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었다. 1931년에 불교중앙학림을 중심으로 만해를 따르던 불교청년회가 ‘진국불교청년총동맹’이라는 명의로 변경되었는데 실상은 김법린, 조학유 등이 비밀리에 결성한 ‘만당’이었다. 그리고 1932년 무렵에는 만당이 일본 동경에도 김법린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⁸³⁾ 이러한 만당에는 효당과 더불어 해인사 지방학림출신인 박근섭, 장도환, 강재호, 박영희 등이 국내외에서 참여하였다. 하지만 활동상의 이유로 내부에 이견이 생기게 되었다.

이 무렵인 1932년 8월 만해가 해인사를 다녀간 일이 있었다. 그는 「해인사순례기」라는 글을 쓰면서 당시의 감상을 적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해인사를 참배한 적이 없음을 서두에 밝혔다.⁸⁴⁾ 이는 앞서 언급한 효당

82) 布施辰治 張祥重 鄭泰成 共著, 『運命の勝利者 朴烈』(東京: 世紀書房, 昭和21年), p.104, p.172. ; 채정복 編, 「효당의 항일운동 및 기타사료」, 『曉堂崔凡述文集』 2, 민족사, 2013, pp.3-12.

83)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41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635.

84) 萬海, 「海印寺巡禮記」, <佛敎> 100號, 佛敎社, 1932.10, pp.111-115.

과 오제봉의 회고를 놓고서 판단할 때 사실로 보기 어렵다. 그는 해인사를 가던 중 5일 오후 1시에 부산 범어사 강원에서 청년동맹의 요청으로 약 1시간 강연을 하였고, 이후 출발 전에 강유문을 만났으며 오후 5시경에 머물던 여관에서 형사 2인으로부터 검문과 수색을 당하였다. 다만 그가 부산에서 강유문을 만나고서 해인사를 가게 된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이후 전개된 만당의 해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1933년 무렵 효당은 한용운의 권유로 조선불교청년총동맹 3대 위원장에 피선되어 취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만당의 해산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당의 근거지를 효당이 1928년부터 이미 주지였던 다솔사로 옮겨서 비밀리에 활동을 이어나갔다.⁸⁵⁾

이 당시에 효당은 서울에는 명성여학교, 다솔사에는 불교전수강원을 설립하였다. 1934년에는 농민자제를 위한 광명학원을 다솔사 부근에 설립하여 김법린, 김범부 등의 만당 당원들이 공식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다솔사의 불교 강원은 다시 해인사 강원과 1935년 9월에 통합되어 개량된 형태로 유지되었다.⁸⁶⁾ 이후 이러한 흐름은 광복 후 해인사가 지분으로 참여한 국민대학의 설립과 그로부터 분리된 해인대학으로 이어졌다.⁸⁷⁾

2. 해인사 사건

85) 김광식, 채정복 編, 「卍黨과 曉堂 崔凡述」, 『曉堂崔凡述文集』 3, 민족사, 2013, pp.266-277. ; 김광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pp.166-178.

86) 채정복 編, 「曉堂 崔凡述스님의 功績概要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31. ;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44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642-643.

87) 경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編, 『경남대50년사』, 경남대학교, 1996, p.69, p.74. ; 최화정, 「曉堂 崔凡述의 삶과 佛敎」,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pp.23-25.

이 와중에 효당은 1937년 말에 당시 중앙총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으로 위문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⁸⁸⁾ 또, 당시 해인사(주지 이고경)와 임환경 등은 위장의 일환으로 국방헌금을 하였다.⁸⁹⁾ 나아가 1939년에는 박렬사건 당시 일본승려인 사카도 치카이(坂戸智海)와의 인연으로 ‘己卯多率寺安居’라고 부르는 일본 천태종과의 불교학술 교류행사가 다솔사에서 열려 우리 측에서는 김범부 등의 항일지사가 발표하였다. 행사 다음날에는 만해의 회갑연이 열렸다.⁹⁰⁾

아마도 1932년 만해의 해인사 순례 이후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일제의 시선을 돌리려는 눈속임으로 만당의 활동 근거지로 다솔사와 해인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⁹¹⁾ 그러던 중에 결국 만당의 존재가 발각되어 그 근거를 제공한 효당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연이어 검거되었고 1943년 무렵까지 대부분 수감되었다.⁹²⁾ 이러한 배경에는 효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인사 문중과는 다소 이질적인 금강산 계열의 승려로 보이는 雪酬 卞榮世의 밀고가 있었다.⁹³⁾ 그는 전임 주지였던 이고경과 같은 임환경 계열의 승려들과 대립하던 상황이었다.

88) 김상현, 채정복 編, 『구당과 曉堂 崔凡述』, 『曉堂崔凡述文集』 3, 민족사, 2013, pp.220-221.

89) <佛敎時報> 27호(1937년 10월 1일)의 p.7, <佛敎時報> 29호(1937년 12월 1일)의 p.5[김광식 編,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37집, 민족사, 1996년 9월 30일 참조]; 채정복 編, 『曉堂의 功績概要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33.

90) 이때의 만해의 모습이 『韓龍雲全集』 1의 卷頭에 실린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이다.[채정복 編, 『韓龍雲全集 刊行辭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436의 사진 참조.]

91) 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46-47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648-649.

92) 채정복 編, 『효당의 항일운동 및 기타사료』, 『曉堂崔凡述文集』 2, 민족사, 2013, p.21.; 김광식 外,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종교계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2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8, 문화투쟁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pp.881-882.

93) 이지관 編, 『伽椰山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p.952.; 한국불교총람편찬위원회 編, 『한국불교사연표』, 『韓國佛敎總覽』, 大韓佛敎振興院, 2008, p.1327의 1888년, p.1356의 1943년 참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김태신의 증언에 따르면 만해와 효당 등이 지속적으로 비밀리에 해외에 연락을 하고 자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해인사 사건 당시 이고경, 임환경과 더불어 효당이 검거된 이유가 일제가 주목했던 의열단의 거점이 있었던 상해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⁹⁴⁾ 특히 상해는 박렬과의 密議로 효당이 폭탄을 입수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만당과 의열단과의 연관성은 당시 다솔사에 드나들던 의열단 인사들인 이기주, 박희창, 이시목 등과⁹⁵⁾ 만해와 호형호제를 하였던 의열단원인 남정 박광⁹⁶⁾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⁹⁷⁾

광복 후 효당은 남정에게서 전해 받은 만해의 유고를 정리하여 1973년 『한용운전집』이 간행되어 나오게 하였다.

94) “중국 상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선독립단체에서 국내로 요인을 파견, 조선 내에서 일시에 들고 일어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다는구나. 그 요원들과 내통하며 독립운동자금을 걷고, 거사계획을 세운 주모자가 임환경과 최영환(효당 최범술)이라고 들었다.”(김태신, 『라홀라의 思母曲』 상, 한길사, 1991, p.263).

95) 효당은 이에 대하여 ‘한편 多率寺에는 金法麟, 金凡父등 인사가 은거하고 있어 국내외 유지들의 왕래가 잦았다. …(중략)… 다솔사에 韓龍雲선생을 비롯, 義烈단원 李基周, 朴喜昶, 李時穆씨 등도 자주 들렀다’라고 회고하였다.(채정복 編, 「청춘은 아름다워라」 45화,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645).

96) 朴洸(생몰연대: 1882년~미상). 호는 南汀으로 경북 고령사람이다. 1909년 안희제·윤세복·김동삼·신팔균 등 80여명의 동지와 함께 비밀결사 大同青年黨을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폈다. 그 후 중국으로 건너가서 白山商會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자의 은닉과 여비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 그는 김원봉이 주도·조직한 義烈團에 가입하여 자신의 상점을 독립운동 거점으로 제공하며 활동하였다. 1923년 11월에는 김원봉으로부터 무기와 신임장을 인수받아 강홍열·이상쾌에게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내로 잠입하여 김정현·구여순·오세덕·문시환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도록 하였다.(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공훈록 참조.)

97) 채정복 編, 「萬海 韓龍雲선생」,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404-407. ; 채정복 編, 「韓龍雲全集 刊行辭 및 年譜」, 『曉堂崔凡述文集』 1, 민족사, 2013, pp.435-437. ; 인권환,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1, pp.240-243.

V. 결어

이상과 같이 반 세기전의 기록인 효당의 회고인 「三·一運動과 海印寺」 등을 통해 해인사의 지방학림의 근대적 모습 속에서 한 세기 전의 큰 민족적 사건인 3·1운동을 살펴보았다. 뜻밖에도 승속을 아우르는 그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익히 경전 속에서 들어온 사부대중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한 해인사 지방학림과 학교의 교사와 학인들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과거의 소중한 궤적은 이제는 『海印寺誌』의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비록 지금의 흐린 기억 속에서 살펴보아도 승속을 아우르는 범보사찰 해인사의 사부대중은 3·1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사회참여를 가속화하였고 그 자체로 회향을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교육활동으로 여성을 위한 명성여학교와 농민자제를 위한 광명학원을 세웠다. 또한 사내의 강원에도 근대학문의 방편을 적용시켰다. 이것은 근대적 교육과 독립운동을 동일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방편으로는 의열단과 같은 무력투쟁에서부터 대중과 승려를 아우르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나아가 비밀 항일 결사단체인 ‘만당’ 등의 결속을 통해서 그 구심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큰 깨달음’을 구하고자 어떤 이는 ‘님’을 찾았고, 또 어떤 이는 ‘一心’을 찾았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광복이 오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해인사와 만당을 기반으로 사회에 참여했던 노력들은 건국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이은 건국 초기의 혼란과 동란은 해인사의 사부대중이 공들여 이룬 결과물인 해인대학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혼란으로 인한 상실은 애써 지나온 과정의 失傳을 낳았다. 그 결과 근대 지리산 일대의 개혁적이었던 해인사

사부대중이 걸어온 길을 지금은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효당 최범술이 어렵게 꺼낸 「三·一運動과 海印寺」 회고로부터 우리는 다시 반세기가 되었다. 불교의 대승적 가르침은 이 땅에 들어온 지 천오백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수레는 큰 짐을 싣고 가고 있다. 그 수레를 몰고 가는 우리 자신은 짐으로 무엇을 싣고 가는 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당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해인사 지방학림이 민족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3·1운동의 바탕이 되었음에 주목해야하며 이 바탕과 3·1운동으로 촉발된 불교의 근대적 자각이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의 참여로까지 이어졌음에 그 역사적 의의와 방향을 찾을 있다.

참고문헌

-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冊ノ內四』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冊ノ內七』
『大韓學會月報』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四』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五』
경남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編, 『경남대50년사』, 경남대학교, 1996.
국사편찬위원회 編, 『(資料)大韓民國史』 12, 국사편찬위원회, 1999.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김광식, 『백초월』, 민족사, 2014.
_____,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37집, 민족사, 1996.
김광식·박미경 編,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자료집1(신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7.
김태신, 『라홀라의 思母曲』상, 한길사, 199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독립운동사 - 삼일운동사(하)』 3,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8, 문화투쟁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編,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8, 문교부, 1970.
박미경 編,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
오제봉, 『善南古道觀』, 일지사, 1984.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이용락, 『삼일운동실록』, 三一同志會, 1969.
이지관 編, 『伽伽山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인권환,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1.
채정복 編, 『효당최범술문집』 1-3, 민족사, 2013.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한국불교총람편찬위원회 編, 『韓國佛教總覽』, 大韓佛教振興院, 2008.
- 布施辰治 張祥重 鄭泰成 共著, 『運命の勝利者 朴烈』, 東京: 世紀書房, 昭和21年.
- 강미자, 「김법린의 민족운동과 대중불교운동」, 『大覺思想』 14, 대각사상연구원, 2010.
- 김광식, 「다술사와 항일 비밀결사 卍黨 -한용운, 최범술, 김범부, 김동리 역사의 단면」, 『佛敎研究』 48, 불교연구원, 2010.
-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일심교」, 『정토학연구』 17, 한국정토학회, 2011.
- 김상현, 「曉堂 崔凡述(1904-1979)의 獨立運動」, 『동국사학』 4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0.
- 김순석, 「3·1운동기 불교계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 안계현, 「三·一運動과 佛敎界」, 『三·一運動50周年記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제점숙, 「일제하 효당 최범술의 일본유학과 교육활동」,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 최재목, 「효당과 다술사의 김범부」,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 최화정, 「曉堂 崔凡述의 삶과 佛敎」, 『만해학보』 1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7.
-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敎」, <新生>, 신생사, 1946.3.
- 만해, 「해인사순례기」, <佛敎>100號, 佛敎社, 1932.10.
- <대한불교>, <동아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신동아>

Abstract

The March 1st Movement of Haein temple(Haeinsa)

Choi Hwa-jeong

(Director, Panyaro Institute for the Way of Tea)

Buddhism is a popular religion. For example, most of the Mahayana Buddhist scriptures are preamble to the scriptures with the four kinds of people gathering to hold Buddhist lecture meeting. The preamble begins with “Thus I have heard” describes all surrounding conditions, including when, where, and the audience of the sermon. The March 1st Movement(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that occurred when the Buddha’s teachings met with modern Korean society, which was led by the Buddhist community. In other words, it was a case involving many Koreans, regardless of men and women, the elderly and boys, monks and ordinary people.

In this regard, the “The March 1st Movement and Haeinsa” recorded by Hyodang Choi Beom-sul half a century ago can be found in the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Haein temple(Haeinsa) about the following facts on the The March 1st Movement, a historical event of a century ago.

First, Hyodang Choi Beom-sul’s memoir about the March 1st Movement in Haein Temple has important historical value. His memoir became the basis of various history books, and la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Haein temple was mainly dealt with in one small unit.

Secon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Haein Temple, participants continued their independence movements, with a patriotic group ‘Uiyeoldan’ and ‘Mandang’ in Korea and abroad. Shin Cheol-Hue, a mastermind of the Miryang Incident, was engaged in the activities of ‘Uiyeoldan’ in Korea, while Hyodang Choi Beom-Sul planned the assassination of the Japanese Emperor along with Park Yeol and others in

Japan. Afterwards, they lived in Dasol temple(Dasolsa) and Haein temple, and secretly provided the foundation for ‘Mandang’, to promote Korean Independence along with various patriots such as Kim Beop-rin and Kim Beom-bu.

Third, the March 1st Movement in Haein Temple was based on Haein Local school and Haein elementary school as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Haein Temple, Haein Local school was the secondary education course, Haein elementary school was an elementary education course. Since then, many students and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ducation. For example, Jeong Gwang-ho, then a teacher at Haein elementary School, and Choi Beom-sul, a student at Haein local school, becam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and participated directly in the founding of South Korea.

As a result, if we look at Choi Beom-sul’s a memoir “the March 1st Movement and Haein Temple”, we can know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March 1st Movement were monks and ordinary peoples like the four kinds of people gathering to hold Buddhist lecture meeting in the Mahayana Buddhist scriptures.

In that sense, the teachers and students in Haein temple, who understood it and faithfully carried out it, we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spects of Buddhists. Unfortunately, however, such valuable records of the past do not remain in any material that conveys the history in Haein temple.

Key words

Haeinsa, Dasolsa, local school, The March 1st Movement, Uiyeoldan, Mandang, Han Yong-Woon, Choi Beom-sul, the Constitutional Assembly, Haein university.